전남형 일자리 803개 창출…청년들이 돌아온다

사업비 187억 '블루이코노미 일자리 2.0 프로젝트' 7개 사업 시행

디지털·비대면·2차전지·온라인 마케팅 분야…지역정착금 지원도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주관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최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활동가 워크숍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프로젝트'로 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데 이어, 전남 마을로 플러스지원사업 등 6개의 사업으로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전남도 제공〉

디지털, 비대면, 2차전지, 온라인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인건비, 지역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여 명의 타 지역 청년 등 800명 이상이 우량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전남으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온라인 산업의 강세, 비대면 산업구조 전환 등에 대응해 올해 일자리 분야에서 국비 10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7억원 규모의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프로젝트'를 기획해 시행하고 있다.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는 디지털, 비대면, 2차전지, 온라인마케팅 등 7개 세부사업을 통해 803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만인 지난 7월말 현재 약 200여명의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남으로 전입했고, 10여 개의 기업이 전남으로 이전했다. 사업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지만, 기업과 인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 참여한 청년 취업자는 인건비 200만원을 지원받으며(창업 제외), 일부 사업의 경우 2년의 참여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될 시 지역정착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은 기업에 배치되기 전 약 2개월 가량의 체계적인 사전직무 교육을 받고, 근무중 직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참여 기업은 외부 선정평가위원의 평가지표별 심사를 거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청년 인력을 배치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는 이차전지, ESS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에너지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 웹툰·카툰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전남툰(TOON)일자리 사업', 저탄소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능동형 탄소감축 제조 산업군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등이 있다.

여기에 데이터사이언스(DS)전문가 양성과정,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 후속지원, 빅데이터기반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최근 2023년 신규 청년일자리 발굴을 위한 6개 출자출연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애니메이션센터 및 글로벌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된 일자리 및 2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첨단 일자리 ▲남해안관광벨트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일자리 ▲상생협력형 광역일자리 ▲권역별 산업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일자리 등을 현안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또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면서 '전남 마을로 플러스지원사업' 등 6개의 사업으로 신규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최정운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노동 등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변화에 선제적·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일자리 사업의 발굴을 위해 정책결정 전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며 상생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온천수 활용 트라우마 치유 돕는다

광주트라우마센터-화순비오메드요양병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 치료 협력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온천수를 활용한 재활치료에 나선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30일 "화순 비오메드요양병원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의 온천수치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트라우마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명권 트라우마센터장과 비오메드요양병원 김인규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치유대상자는 의료기관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게 된다.

비오메드요양병원은 온천수를 이용한 전신풀, 보행풀, 회전욕(월풀) 등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유대상자의 온천수 치료 결과를 협약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 온천수 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창균 광주시 국제평화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은 물론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의 재활치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최초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 추가 설치

지난해 904명 이용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

전남도가 120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3곳을 추가 설치한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계획해 추진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설치한 이후 2018년 강진의료원, 2019년 완도대성병원, 2020년에는 나주 빛가람종합병원에 총 4개소를 개소했다. 올 3월에는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5호점을 임시 개원했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매년 늘고 있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는 8430명(전국 대비 3.2%)인데,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민간병원 포함) 이용자는 5096명로 출생아의 60.5%를 차지했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04명(17.7%)으로 2020년(382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현재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5개소로 거점별로 고루 분포해 전남 전 지역 산모들이 30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해져 쾌적한 출산서비스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시설 및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지난 2015년 1호점 개원 이래 2021년 기준 2800명의 산모가 이용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도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민선8기에도 저출산 극복과 200만 인구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민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박민식 보훈처장 광주 찾아 5·18묘지 참배 등 현장행보

박민식〈사진〉 국가보훈처장이 31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하는 등 보훈 현장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박 처장이 광주를 방문해 보훈 가족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박 처장은 31일 오전 10시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사)오월어머니집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을 한다. 이후 서구 양동으로 가 5·18민주유공자 명패 달기 행사에 참여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을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주 방문에 앞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찾아 보훈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광주의 오월정신이 있었기에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온 만큼,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 널리 알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기,수도권 10억 이상 투자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임야,대지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중 꼭! 받아야할 돈 회수 앙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 앙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일 시 : 2022. 9. 1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일 시 : 2022. 9. 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가원이엔지(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아름전력(이하"을"이라 한다)은 2022년 08월 30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2년 8월 31일

"갑" 주식회사 가원이엔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에이지원동 311호 (시흥동,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대표이사 홍 석 희

"을" 주식회사 아름전력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15-7
대표이사 박 민 희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오형수(471110-1XXXXXX, 2022년 5월 9일 사망, 광주 북구 군왕로207번길 20, 104동 815호 (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의 법정상속인 1. 오청원 2. 오연경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하고자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 3785호로 한정승인사건을 신청하여 2022년 8월 30일자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오형수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한정상속인 : 1. 오청원 2. 오연경
채권신고장소 :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12, 102동 301호 (삼산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 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 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 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산행안내

9월3일(토)

▲광주호산회 9월3일(토) 〈금산 자지산[紫芝山], 월영봉 출렁다리〉 오전 06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